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남이다

(창17:15~27)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남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남이다.'
새문안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 수영 목사님께서 현재도 목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목사님이라는 호칭보다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더 익은 이유는 신학대학 때에 저희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스승님이세요.
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의 동료 목사님이 그 교수님 밑에서 조교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동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영 교수님께서 제 동료 목사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이거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어."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거 참!"라고 하시더니 머뭇머뭇하시다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수영 교수님의 연세가 50세였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글쎄,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어.” 그러시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웃음이 팍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 왜 웃어?”
“그냥요, 웃음이 나와요.”
그 소릴 듣고 저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쁜 따님이 세 분이 계셔서 다 중학생이상 자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자식을 낳을 기대는 전혀 안하고 계시던 상황인데, 연세가 50인 상황에서 사모님이 덜컥 임신이 되니까 어디 나가서 이야기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신 거예요.
제 동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웃고 같이 있던 모든 동료 목사님들이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이 수영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로 계시는 동안에 영락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영락교회의 협동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손을 붙잡고 교회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50세에 낳은 아들인데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가 없죠. 그 모습을 보는 교인들마다 그렇게 웃으십니다. 즐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 17년 만에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제 경우는 웃는 사람보다 깜짝 놀라는 사람, 우는 사람을 더 많이 봤습니다.
이상하죠? 다 기뻐하는데.
이 수영 교수님이 50세에 늦둥이를 보신 것과, 제가 17년 만에 첫둥이를 본 것과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 수영 교수님이 50세에 늦둥이 아들을 낳으신 것은 다 즐겁게 웃습니다.
그런데 제가 17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다 정색을 하고 기뻐합니다.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목사님, 이게 웬일이야!”라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엉엉 우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아버지가 자꾸 우신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지만 그 때에는 “우리 승철이가 아이를 낳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다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가 89세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를 낳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엎드려서 웃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기가 막혀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는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4:19-2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본문에 내년에 아기를 낳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의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이 표현상 전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하신 것이 이룰 것이라고 믿은 흔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과 전혀 일치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표현상으로만 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의리를 가지고 변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웃었을까요?
그리고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한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영 교수님의 예를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수영 교수님이 딸만 셋이고 50세에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100세가 되시고 사모님이 90세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해 주겠다.’라고 하셨으면 어땠겠습니까?

이 수영 교수님이 50세에 사모님이 임신하셨을 때에도 조교 제자한테 '야, 창피하고 곤란해 죽겠어'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100세고 사모님은 90세인데 아기를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를 갖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라고 반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여간 이 수영 교수님이 50세 연세에 늦둥이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다 웃었어요. 즐거움이에요. 제가 17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의 반응과 기쁨이 다른 점은, 즐거움은 여유로움 위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미 딸이 셋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 수영 교수님이 신앙이 있으신 분으로서 딸만 셋을 주셨다고 해서 아들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야! 내가 50살에 드디어 쾌거를 이루었다. 끈질기게 아들을 구했더니 주셨다"라고 반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야, 드디어 인간승리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도 이 수영 교수님도 100세였다면 "하나님, 집 사람이 지금 무릎이 아파서 자기 몸도 못 가누고 걷지도 못하는데 아기까지 가지면 도대체 어떻게 걸어 다니라는 말씀이십니까?"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생리적으로 임신을 못 할 것이라는 의심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의 '어찌'라는 말은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이지 '어찌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이제 100세가 되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지가 오래되었고 나이가 90세인데, 그리고 어차피 13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 13살로 잘 자라고 있으니 어쨌든 내 핏줄이잖아요.
하갈이 낳았지만 얘가 잘 자라게 해주시면 되지, 사회적인 맥락에서 볼 때 좀 그렇습니다. 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이 수영 교수님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야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때 인격이 꼬이지 않고서야 그 소리를 듣고 즐겁게 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즐거워하지요.

아브라함이 웃은 이유는 남의 일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저처럼 17년 동안 아이를 기다리다가 아이가 들어서게 되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밑에서부터 17년 동안 쌓이면서 올라왔던 그 뭉클함 때문에 울음이 나오죠. 집사람이 임신한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 웃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깜짝 놀라서, '아니 100세에 아이를 갖다니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라고 했겠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 중에 이웃집 아저씨가 60에 아이를 가졌다면 그러냐고 웃지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시면 반드시 웃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면 다 깜짝 놀라요. 기다리던 일이라면 감격해서 울면서 기뻐합니다. 즐겁게 웃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웃는 사람 못 봤어요. '아이고!'하고 다들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지요.

이게 참 성경의 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이 남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 자신은 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100세에 아이를 갖는다고?' 남의 일처럼 웃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도 웃겨요.
한 마디도 "네 이 놈! 지금 이 일이 내 일이냐? 네 아내 사래가 아이를 낳는다는데 웃어?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면 좋겠다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25년 만에 성취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웃고 있는 그 태도가 맞아?"라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이스마엘도 네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러나 이삭이 되어야 해"라고 하십니다.
홍길동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아요. 홍길동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입니까? 첩의 자식인데 이 자식이나 잘 자라서 가문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첩에서 나은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홍길동이 보면 존경하고 싶어서 기절할 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과 정실부인인 사라에게서 나은 자식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남의 일입니다. 하나님 혼자 바쁘신 거예요.
처음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후사를 주겠다고 하시고, 민족을 크게 이

루게 하겠다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생래적으로 우리 것이 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열정적으로 노력하면서 간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약점 잡히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복을 막 가져다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람이 사래를 버려도 알아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약점 잡히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에 대해서는 쩔쩔 매시면서 혼자서 앞장서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이를 갖게 된다는데 남의 일처럼 웃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산 야곱의 인생 전체가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자기 자신의 일들을 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의 일을 당신의 일로 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극성맞은 엄마처럼.
극성맞은 엄마들이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17년 만에 아들을 낳고 나니까, 집사람이 아들에 대해서 하는 걸 보고 어떨 때에는 제가 소리를 꽥 지릅니다. 애가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가는데, 애는 아침에 의자에 앉아서 만화책 뒤적이고 있고 엄마가 가방 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에게 “여보! 학교 잘 다녀와. 무진아! 너는 이리 와서 밥할 준비해라”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누가 학교를 가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사람도 하다하다 애가 자기 일에 하도 관심을 안 가지면 “야, 학교 내가 가냐?”라고 소리를 꽥 질러요.
그 엄마의 심정을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동안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교 내가 가냐?’라는 말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네 학교 내가 간다. 네 애 내가 낳는다. 네 사업 내가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장에 가서 딴청 부리고 있는 겁니다.
딴청이 무슨 딴청이냐?
마음으로 이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이 1등 되는 것만을 위해서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일은 완전히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 내가 낳고, 네 사업 내가 하고, 네 인생 내가 산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남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될 내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은 남이라야 되는 거예요.
뭐하느라고 남입니까?
내 마음은 이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을 벌고, 하나님과만 친해지고, 하나님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는 일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이 세상일은 다 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세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니까 피식 웃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70~80세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우리가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어버리는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
남의 집에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애 낳는다고 우리 마음이 꼬여서 "이 사람 주책없네."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느껴야 하는 것은 본인이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주책없다고 하지 않을까?'
이 수영 교수님이 50세에 아이를 갖고 보이신 그 반응이 제대로 된 본인들의 반응입니다. 계속 기대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세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누가 웃느냐?
남이 웃어요. 50세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남이 웃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진짜 아브라함이 애 낳는 일을 자기 일로 생각했다면 울어야 돼요. 사래의 몸에서 나올 애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는 당연히 울어야 합니다.
"이게 웬일이십니까? 이제야 응답해주십니까?"라고 울어요.
웃었다는 것은 남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남의 일로 사세요.
남의 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건희 씨가 개인재산이 몇 십조가 있다고 하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돈 갖고 뭐하나?"
남의 일이니까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돈이 많이 벌린다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벌리는 거냐? 이거 해서 뭐해?"라는 마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돈이 안 벌리는 것은 돈 버는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돈을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주시는지도 몰라요.

내게서 돈 버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게서 이 세상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게서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에서 1등 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내 일이에요. 내 job입니다. 내 직업이에요.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고, 내가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십자가 생활화, 이게 내가 전문화해야 될 유일한 직업입니다.
엄마들 같으면 '내가 학교 가냐?'라고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학교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온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100세가 아니라 200세가 되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걸 의심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 뒤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137세에 그두라 라고 하는 젊은 부인을 얻어서 무려 여섯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부인이 젊으니까 그 부인도 후사를 얻는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웃어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일? 다 남의 일입니다.
그 남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 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 빼앗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는 것, 십자가를 생활화 하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될 유일한 나의 일입니다. 이것 하나 빼 놓으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학교 간다! 내가 사업한다! 내가 애 낳는다! 내가 애 기른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땅에서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은 남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남이 되는 이유가 오직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